

**무공저**

## 황혼 그리고 이혼

수마트라 섬 밀림지대에는 사망이라는 큰길판원숭이가 살고 있다. 사람처럼 암수 한쌍이 새끼를 낳아 가족을 이루며 사는 유인원이다.

이 원숭이 부부는 매일 아침 일어나 먼 자신들의 영역을 알리느라 노래를 부르는데 연륜이 쌓이고 부부간 정이 깊어질수록 이중창 실력이 좋아진다고 한다.

그런데 동물원에서 억지로 짝을 짓게 하면 놀랍게도 부부가 새끼는 낳아도 같이 노래를 부르지는 않는다고 한다. 부부간 교감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빌 게이츠 부부의 이혼 소식이 지구촌을 흔들었다. 무엇보다 세인의 관심이 쏠린 것은 그들의 이혼 사유.

전문학적 부를 일구고 법지구적 프로젝트로 사회환원을 하며, 도무지 부

미 있게 새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중간단계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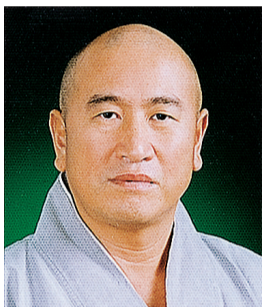
그래서 50대 중반을 넘어선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않을 경우 이혼과는 다른 방식으로 부부 합의 하에 사이 좋게 결별하기도 한다. '결혼을 졸업한다'고 하는 이 결혼 현상도 '인생 제3막'과 상관이 있다.

결혼생활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토대로 유지된다.

부부가 같이 할 일과 같이 나눌 사람, 같이 하는 시간, 그리고 빠질 수 없는 현실적 조건인 돈으로 생각할 수 있다.

불교는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가르친다. 500겁의 인연이 있어야 웃기 한 번 스치고, 8,000 겁의 인연이 있어야 부부 로 맺어진다고 한다.

겁이란 100년에 한 번씩 씩 천으로 닦아서 사



중 상  
(청계사 회주)

### '인연'을 씨앗 삼아 '마음 밭'에서 '관계'의 나무를 튼실하게 키워야

죽을 것 없어 보이던 그들이 왜 갈라서는 걸까.

66, 55세 빌 부부처럼 '검은머리 파뿌리 되도록' 살다가, 뒤늦게 부부가 갈라서는 이런 황혼이혼이 우리 사회도 급격하게 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 19로 결혼 이혼율이 모두 줄었지만 유독 50세 이상 황혼이혼만 늘었다.

황혼이혼은 현재 전체 이혼 3건 중 1건 꼴이며 전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이라고 한다. 오래 같이 산 부부들이 왜 줄줄이 헤어지는 걸까.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근본적 이유는 길어진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이 꼽힌다. 환갑이면 노인이다 이전 세대와 달리 요즘 60은 너무 젊고 건강하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대략 30년. 그래서 50~75세는 '인생 제3막'으로 분류된다. 성장기와 성년기의 1~2막을 거쳐 노년기로 들어가기 전, 재미있고 의

방 15km의 바위가 닳아 없어질 시간,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만큼 인연을 소중하게 대하라는 가르침이다.

인연이 우리의 의지 너머 신비한 힘으로 만남을 이끌어준다면, 그 인연을 씨앗삼아 관계의 나무를 키워내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마음 밭이 비옥할수록, 물과 양분을 정성껏 공급할수록 나무는 무려무려 잘 자라날 것이다.

세상에는 좋은 인연을 악연으로 끝내는 어리석은 이들이 있는가 하면, 악연에서 선한 인연을 이끌어내는 지혜로운 이들도 있다. 그 귀한 인연들에 우리는 그에 마땅한 정성을 쏟고 있는 지, 너무 함부로 대하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다.

'관계'의 나무들을 얼마나 튼실하게 잘 키워냈느냐가 결국 우리 인생의 성적표가 될 것이다.

## 부처님오신 날 봉축 대법요식 봉행

"깊어진 삶 내려놓으면 더 좋은 미래가 열린다는 것 보여주기 위함"

5월 19일 오전 10시 50분, 코로나 19가 온 세상을 뒤덮은 가운데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대법요식'이 여법하게 봉행됐다.

법요식은 청계사 주지 성행스님을 비롯한 김상돈 의왕시장 등 각계인사들이 다수 참석하여 부처님오신 날을 축하했다.

이날 봉축법요식 참석자들은 마스크 착용, 체온측정, QR 체크인, 소독 등 코로나 19에 대비한 엄격한 방역 절차를 거쳐 식장에 입장했다.

법요식은 명종, 육법공양, 삼귀의, 법어, 축사, 기원문, 관불의식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주지 성행스님은 중정예하를 대신한 봉축 법어를 통해 "여러 불전(佛典)을 살펴보면 눈앞에 금덩어리가 나타났지만, 지금까지 지고 왔던 삶 덩어리가 아까워 차마 그것을 버리지 못한다는 어리석음을 경계한 '담마기금(擔麻棄金)' 표현이 등장한다"며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깊어진 삶을 내려놓아도 된다는 것, 내려놓으면 더 좋은 미래가 열린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행스님은 "비록 우리가 직면한 삶의 현실은 가볍지 않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부처님이 몸소 보여주신 삶의 길을 따라 가족·이웃과 함께 도반이 돼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축사에서 "우리나라 불교는 예로부터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앞서서 위기를 극복해내는 지혜를 모아왔다"고 말하고 "은 국민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때 우리 모두가 존귀한 존재로서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처님께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청계사 주지 성행스님은 불우이웃 돕기 성금 500만원을 의왕시장에게 전달했다. 또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 거주시설 녹향원, 청계주간보호시설, 청계사 모범어린이 등에게도 성금과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저녁 6시 30분부터는 저녁예불에 이어 주지 성행스님과 사부대중들이 참여한 가운데 점등식과 탑돌이가 여법하게 진행되었다.



▲1부 법요식에 참석한 주지 성행스님과 사중 스님들. (사진 조여래장)



▲점등식 후 제등행렬을 마친 사부대중. (사진 서용화수)

### 생활의 지혜

## 이야기 백유경

④ 음식을 급히 먹는 남편

### 조부 때부터 항상 빨리 먹는 법 지켜 왔소

O……많은 사람들이 전통을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전통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게다가 그릇된 일을 저지르면 서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우리 조상 때부터 이런 법을 지켜왔다."며 죽을 때까지 그릇된 일을 반복한다. 기존의 가치 개념을 타파하는 데서 가장 큰 깨달음이 열리는 법이다.

O……우리는 많이 가져야 좋은 줄 알고 있으며, 높은 지위에 올라 군림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 안다. 많이 소유한다고 항상 만족할 수 있을까? 사람의 마음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더

옛날 어떤 사람이 북인도에서 남인도로 가서 거기서 오래 사는 동안에 그곳의 여자를 맞이하여 부부가 되었다.

어느 때 그 아내가 남편을 위해 음식을 차렸다.

남편은 급히 먹으려고 뜨거울 것도 생각지 않았다.

아내는 이상히 여겨 그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기는 사람을 겁탈할 도적도 없는데 무슨 급한 일이 있어 그렇게 바쁘게 드십니까?"

남편은 대답하였다.

"비밀한 좋은 일이 있는데 당신에게는 말할 수 없소."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한 일이 있으리라 생각하고는 간절히 물었다.

남편은 한참 만에야 대답하였다.

"우리 조부 때부터 항상 음식을 빨리 먹는 법을 지켜 왔소. 나도 지금 그것을 본받기 위해 빨리 먹는 것이요."

<매설> 세상의 범부들도 그와 같다. 바른 이치를 통달하지 못하여 선과 악을 알지 못하고 온갖 그릇된 일을 행하면서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조부 때부터 이런 법을 행했다'고 하면서 죽을 때까지 끝내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빨리 먹는 습관을 좋은 법이라 생각하는 것과 같다.

가지고 싶어하며, 벼슬도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높아지고 싶어한다. 아무리 큰 부와 높은 권력이라도 인간을 완전히 자유롭게 행복하게 할 수는 없다.

O……무소유 정신으로 적게 소유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줄 때, 자유와 평화는 자신과 이웃에 깊이 뿌리내리게 된다. 무집착 정신으로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며

충실할 때, 권력은 어려운 이웃에게 참된 힘이 되어 사회에 자유와 평화와 깃발을 높이 나누게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기존의 관습에 얽매어 눈먼 봉사가 될 것이며, 지혜로운 사람은 기존의 관습을 냉철하게 꿰어봄으로써 제3의 눈을 얻어 나날의 굴레 속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것이다.

### 법보시를 받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법을 널리 펼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계사보 법보시를 받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50부:10,000원 100부:20,000원

- \*법 보시 명단
  - ♣ 서울구치소 박경선 50부, 박유진 150부
  - ♣ 안양교도소 일동포장기계 150부 김희용 50부, 조수환 50부
  - ♣ 수원구치소 김향수 50부, 김영현 50부 김민준 50부
  - ♣ 청주여자교도소 정종순 50부, 김대희 50부
  - ♣ 경주 교도소 이갑숙 50부, 이근혁 50부 이고은 50부, 윤석호 50부
  - ♣ 여주교도소 김정중 50부, 최계송 150부 조수환 50부
- 기업은행 109-058786-01-040  
(예금주:청계사 출판부)

## 49일 백중 지장기도 안내

귀의삼보 하옵고 불자님의 가정 내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청계사에서는 백중을 맞이하여 영가천도를 위한 49일 지장기도를 봉행하오니 두루 동참하시어 자극정성으로 기도 올려 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선망부모와 형제, 자매 및 유주 무주 애혼 고훘 일체인연영가를 천도하시고 다겁 생래의 모든 업장을 소멸하시어 무진복락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 입 재 : 불기 2565년(2021년) 7월 5일(음력5월26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회 향 : 불기 2565년(2021년) 8월 22일(음력7월15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기도비 : 5만원
- 영가위패 : 1위당 5천원
- 영가등 : 1만원

- 준비물 : 쌀3되(제일 때마다 영가에게 공양을 올리니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차약, 칫솔, 세수비누, 양말, 수건1장, 영가 웃은 회향 일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대중공양 실판제자 : 종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 차량안내 : 입재와 회향일은 오전 7시, 8시, 9시, 10시, 11시 운행합니다. 인덕원 진참치 앞(구 오성갈비)
- 온라인 : 기업은행 109-058786-01-413 (예금주 : 청계사)
- 문의처 : 종무소 (031) 426-2221, 2348
- \* 준비물은 회향 날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입 재 : 7월 5일(음5월 26일)
- 초 재 : 7월 11일(음6월 2일)
- 2 재 : 7월 18일(음6월 9일)
- 3 재 : 7월 25일(음6월 16일)
- 4 재 : 8월 1일(음6월 23일)
- 5 재 : 8월 8일(음7월 1일)
- 6 재 : 8월 15일(음7월 8일)
- 회 향 : 8월 22일(음7월 15일)

### ■부처님 오신 날 방담

#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 지혜와 자비의 등불 밝혀 위로와 격려하며 함께하는 세상 만들어 가길

\* 일 시 : 불기 2565년 5월 28일 오전11시  
 \* 장 소 : 경내 출판부 사무실  
 \* 사진·정리 : 조여래장, 황청량심, 서용화수, 심대덕심, 주향진성, 여 여광

### 아기부처님 관육하는 주지 성행스님

지난 사월 초파일 부처님오신 날을 축하하기 위해 청정한 감로수로 아기부처님의 몸을 씻는 의식인 관육을 하고 있는 주지성행스님.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 여파로 내빈과 사회적 거리를 두어 부처님께 헌화 후 자비광명으로 중생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부처님의 높은 공덕을 기리기 위한 뜻 깊은 날을 되새기며 관육을 하고 있다.



### 육법공양

부처님오신 날을 맞이해 육법공양을 올리고 있는 육법회원들... 향은 해탈을 의미하며 자신을 태워 주위를 맑게 하므로 희생을 뜻하기도 하고 화합과 공덕을 상징하기도 한다. 등은 지혜와 희생·광명·찬탄을 상징한다. 꽃은 만행화(萬行花)로서 꽃을 피우기 위해 인고의 세월을 견뎌나고 해서 수행을 뜻하며, 장엄·찬탄을 상징하기도 한다. 과일에는 보리과(菩提果)로 깨달음을 상징한다. 차는 감로다(甘露茶)라고 해서 부처의 법문이 만족스럽고 청량하다는 것을 상징한다. 마지막으로 쌀은 선열미(禪悅米)로서 기쁨과 환희를 상징한다.



### 뉴스&뉴스

### 풍선과 연꽃을 들고 우리 어린이 법우들

지난 4월 초파일 부처님오신 날, 우리 천진불 스카우트 법우는 부처님오신 날을 축하하기 위해 아침부터 모였다. 부모님 따라 절에 온 친구들을 포교하기 위해 풍선도 나눠주고, 연등 만들기도 함께 했다. 연등 만들기가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종이집에 작은 연등을 만들기 쉽고 간단했다. 모든 신도가 모이는 봉축법요식에서 스카우트 이현준, 이하영 법우가 법요식에서 부처님께 우리들도 부처님처럼 살겠다고 다짐하는 발원문을 낭독했다. 이날의 마무리는 풍선과 연꽃을 들고 우리 어린이 법우가 앞장

### 연등 만들기

코로나로 예전처럼 함께 만드는 일이 어려웠지만 각자 소분해 합동하고 어두운 상황을 밝게 비춰주실 거라 믿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부처님오신 날을 맞이해 연등을 만들었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등을 밝히기 위해 신도들은 연등 만들기에 온 정성을 다했다.



### 부처님 오신 날 맞이 대청소

부처님 오신 날 앞두고 목어본팀,1,2,3팀의 각 팀 봉사자들이 모여 법당을 시작으로 도량 곳곳에 먼지를 털고 잡초를 뽑고 계단을 쓸며 청계사를 찾는 참배객들 맞을 준비에 한창이다.



### 소원 성취 기와불사

검은 기와 한 장을 구매 후 화이트 펜으로 가족의 이름과 소망, 날 짜를 정성껏 적어 소원 성취를 기원하며 기와 불사를 하고 있다. 이 기와는 한 장 한 장 쌓아 보관하다 사찰 지붕 기와 교체에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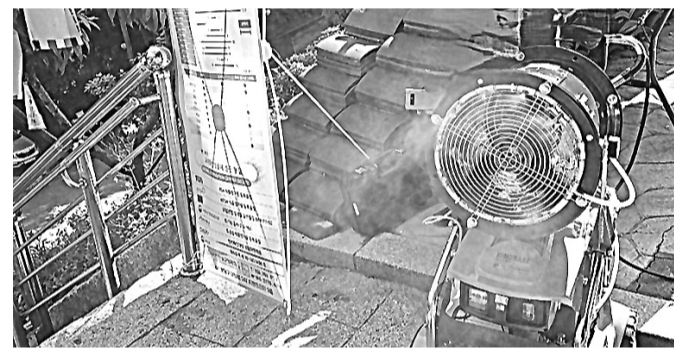
### 달라진 점심 공양

부처님 탄생을 축하하는 봉축 법요식이 끝나고 신도들과 참배객들이 즐서서 점심 공양으로 떡을 받았다. 이날 청계사는 신종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매년 진행됐던 비빔밥 대신 정성껏 포장된 떡으로 대체를 했다. 사찰 곳곳에 앉아 먹던 비빔밥 공양의 모습을 볼 수 없어 아쉬워하며 내년을 기대하는 참배객들이 많았다.



### 코로나 방역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코로나 방역에도 완벽을 기했다. 우선 절을 찾은 모든 불자들이 상대로 큐알 코드나 수기로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체온체크는 기본이며 절 입구, 법당 들어서기 전 곳곳에 자동 분사 소독기를 설치하여 중일 내내 코로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제가 분사 되었고 아기 부처님 관육을 하기 전에 각자 손에다 소독제를 뿌렸으며 참배객들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지키며 부처님께 참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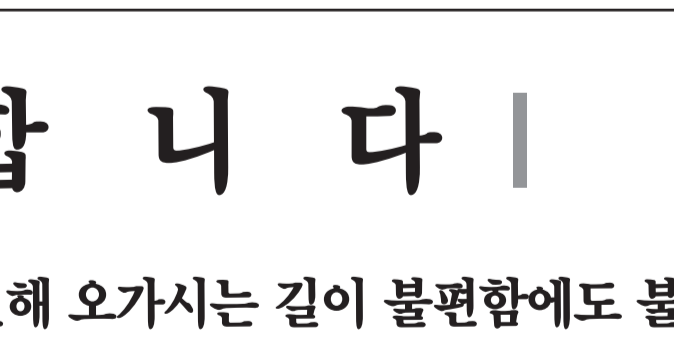
### 우담바라시 낭송

지난 2000년 10월 극락보전에 봉안된 아미타 삼존불 가운데 관세음부처님의 왼쪽 눈썹 주변에 우담바라 꽃이 피어 세간의 큰 화제가 되었다. 삼천년 만에 한 번 핀다는 전설속의 꽃인 우담바라는 영하수준의 상서로운 일이 생길 징조로 알려져 있다. 이를 기리기 위해 매년 부처님 오신 날 우담바라 시 낭송을 하고 있다.



### 희망나래 개관 10주년 기념식

지난 6월 2일 청계사가 지원하는 의왕시 희망나래장애인 복지관(관장 지현스님) 개관 10주년에 주지성행스님과 신도회, 상락회가 참석해 축하를 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은 “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장애인시설 30여개 중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이 가장 모범적이고 시설도 잘 돼 있다”고 평가했다. 성행주지스님은 “청계사가 앞으로도 신도회와 함께 의왕시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에서 아주 작은 힘이나마 변하지 않게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 지역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 온 누리에 평화 가득한 세상 되길

부처님의 크신 뜻을 찬양하고 이 땅에 부처님의 뜻이 꽃피우길 다짐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하고 늘 이웃을 생각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참된 불자가 되자는 기원문을 낭독하고 있는 흥무상행 신도회장



### 희망의 빛! 촛불 제등행렬

산사에 올라온 1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야외법당에서 저녁예불을 봉행했다. 코로나로 인한 한 해 동안의 고통을 소멸시키고 가정과 나라와 전 세계에 진리의 불씨 되어 평화롭고 화합되는 삶에 희망의 빛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 둘, 셋 외침 속에 경내에 모든 등에 불이 밝혀졌다. 사부대중은 촛불을 밝혀 들고 어둠을 밝히듯 내 마음을 밝히며 석가모니불정근을 하며 도량 곳곳에 제등행렬이 이어졌다.



이날 신도회(회장 흥무상행)와 상락회(회장 서지비화)에서 후원금을 전달 했다. (글 조여래장)



# | 감사 합 니 다 |

한여름 같은 무더위의 날씨와 도량 요사채 지붕 공사로 인해 오가시는 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자님들의 후원으로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행사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더 명실상부한 전법 도량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회 주 대 궁 김 종 상  
 주 지 박 성 행  
 사부대중일동

대한불교 조 계 종 청계산 청계사



### 마음따라 찾아가는 산사순례 ⑨

관음성지

### 공주 신원사

한국불교 대표 종단 조계종 사찰은 전국에 3천 사암에 달 합니다. 이 사찰은 행정구역상 25교구로 구성되며 각 교구마다 본사가 설치되어 소속된 말사 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기획지면으로 떠나는 '108성지 순례'는 25개 교구본사를 순례하고 '관음성지' '지장성지' '미륵성지' 주요 영험 기도처별로 찾아 나서, 신도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불로 봉안되어 있다.

신원사에 있는 노사나불 괘불탱(盧舍那佛 掛佛幀)은 노사나불이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장면인 영산회상을 그린 괘불이다. 노사나불은 부처님의 참된 모습이 발현된 형상을 말하는데, 비로자나불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된다. 괘불이란 절에서 큰 법회나 의식을 행하기 위해 법당 앞뜰에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대형 불교

고, 표현 기법과 묘사 정도가 뛰어나 승려화 가인 응을을 중심으로 한 불화 제작 집단의 예술성이 확인되며, 17세기 중반의 불화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준다. 1997년 9월 22일, 문화재청은 괘불탱이 가지는 미적인 측면과 불교 미술사적인 중요성을 인정하여 칠장사, 안심사, 갑사, 장곡사, 화암사, 청곡사에 전해지는 괘불탱들을 각각 국보 제296호부터 제302호까지 지정하였는데, 신원사의 노사나불

### 노사나불 괘불탱, 조선후기 불화양식 대표작 종약단, 우리 산악신앙 제단으로 중요한 의미

그림이다.

길이 11.18m, 폭 6.88m 크기의 이 괘불은 노사나불이 중생을 설법하는 모습으로, 중앙에 노사나불을 중심으로 좌우에는 10대 보살과 10대 제자, 사천왕 등이 그려져 있다. 단독으로 그려진 노사나불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으며, 손은 신체에 비해 큰 편으로 손바닥을 들어 올려 설법하는 모습의 손 모양을 하고 있다. 보살 위의 10대 제자들은 서로 다른 얼굴 방향과 표정, 각기 다른 옷과 물건, 자연스러운 동작과 모습으로 섬세하게 표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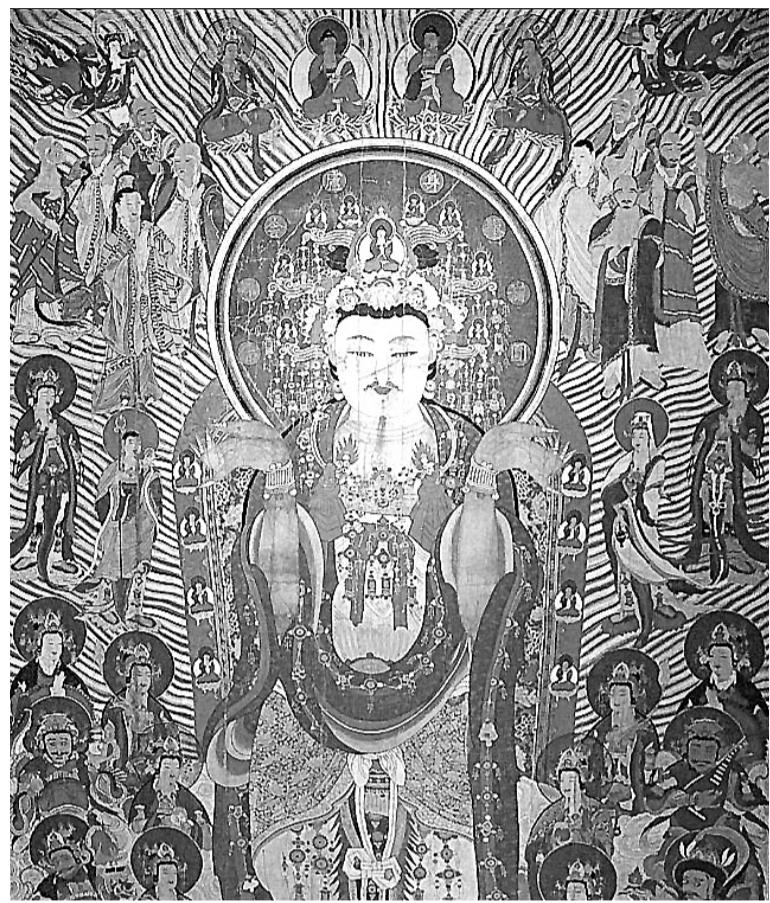
인조 22년(1644)에 제작된 이 괘불은 짜임새 있는 구도, 섬세한 표현, 밝은 색조 등이 세련된 솜씨로 나타나 있어 조선 후기 불화 양식을 보여주는 17세기 대표적인 작품이다. 신원사 노사나불 괘불탱은 보존상태가 좋

괘불탱은 국보 제299호로 지정되었다.

또 다른 문화재로는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31호인 오충석탑과 부도가 있다. 오충석탑은 여래사리탑으로 신라 말 고려 초의 양식을 띠고 있으며, 상층 일부가 없어지고 4층만 남아 있다. 1975년의 보수공사 때 1층 탑신의 사리공에서 사리구와 함께 개원통보·함원평보·황송통보가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모두가 고려시대의 것이다.

이 밖에도 대웅전에서 동쪽 약 50m 거리는 신원사가 관리하는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7호인 계룡산 종약단(中嶺壇)이 있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 팔작집으로 조선 말기 건축 중 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종약단은 우리나라 산악신앙의 제단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리 여여광>



◇노사나불이 설법하는 영산 회상을 그린 괘불탱

### 사찰음식 배워보기 과일 화채

\*재료: 여러가지 과일 (복숭아, 참외, 블루베리 등) 100g, 오이 50g, 오미자즙1/2컵, 매실청 2~3 테이블스푼

- \*만드는법: 1. 여러 가지 과일을 얇게 편으로 썬다. 2. 오이는 먹기 좋은 크기로 얇게 썬다. 3. 오미자즙과 매실청을 섞어서 과일과 오이를 넣어 섞는다. <정리 주향진성>



### 불상생과 방생의 공덕

### 생명사랑 이야기 100

### 79) 푸주한의 얼굴

푸주한 설경관(薛慶官)은 염소고기와 국을 파는 조그만 가게를 운영했다. 음식 맛이 좋아 그의 가게는 늘 손님들로 가득했고 명성이 멀리 그리고 널리 퍼졌다. 어떤 사람들은 그 국 맛을 보려고 며칠 걸려서 오기도 했을 정도였다. 사업이 그렇게 번창하자, 설경관은 짧은 시간 안에 부자가 되었다.

설경관의 불교신자 친구들은 그가 걱정이 되어 더 이상 염소들을 죽이지 말라고 충고했다.

“자네는 충분한 돈을 벌었네.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게. 우리는 정글 속에 사는 짐승들이 아니지 않은가. 동물들을 죽이는 것은 우주에 대한 무서운 범죄라 자네는 그 벌을 피할 수 없어. 조만간 자네의 악행이 자네를 뒤쫓아 오니 그때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네.”

“이거 봐, 설경관. 더 이상 염소를 죽이지 말게. 이미 자네가 지은 모든 죄를 보상하는 참회도 하고 선행도 할 수 있을 만큼 돈도 많아. 다른 사업으로 자네는 여전히 돈을

벌 수 있고, 계속 이렇게 살다가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네. 심지어 자네 자식, 그리고 손자까지도 말일

세.” 설경관은 친구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웃었다. “나는 그런 늙은 여자들의 이야기 같은 것을 믿을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아. 이런 동화로 나를 겁주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게. 우주에 대한 범죄라니 얼마나 웃기는 소린가.”

몇 년이 흘러 설경관이 40세가 되었을 때, 알 수 없는 병에 걸렸다. 입이 불룩 튀어나오기 시작했고, 턱은 점점 더 길어졌다. 눈은 뿌옇게 흐리며 멍해 보였다. 그 모습은 한 마디로 염소였다. 용하다는 의사가 설경관을 위해 어떤 치료도 할 수 없었고 그저 그가 마치 염소같이 보인다는 것에 동의했다.

설경관이 염소처럼 보인다는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퍼져 나갔고 그의 가게에는 음식보다는 그의 모습을 직접 보러오는 손님들이 더 많았다. 사람들은 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서로 속삭이고 머리를 끄덕였다.

그러나 오직 설경관만은 자신이 염소 모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가 그렇게 많은 염소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그가 안휘(安徽)로 장사하러 가던 중 강물에 빠져 죽었다. 하지만 그의 시체는 발견할 수 없었다.

<중국 명나라 고승 연지 주광스님>



### 성행스님의 문답으로 배우는 불교 ⑱

불교를 오랫동안 믿었다고 하는 불자들이 교리를 잘 모르겠다고 하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불자라면서 불교의 기본 교리를 알지 못하면 참으로 딱한 일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신앙에 대해 자신이 없어지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교리 즉 교(敎)를 몸이라 하고 선(禪)을 마음에 비유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비로써 마음 또한 건강할 수 있습니다. 불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교리에 대해 간결한 문답으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새로 불교를 만난 불자들은 물론 구참 불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 우리 불교를 호국불교라고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답) 불교는 한 개인과 가정, 사회 그리고 국가와 인류사회, 더 나아가 천지자연의 질서와 안녕 및 복지를 보장하는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것을 잘 알고 그 진리를 따라 나라를 지키는 힘을 길러 민족을 통일했고, 외적을 물리쳤고, 모든 재앙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불교는 호국불교라고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 조선시대의 고승에는 누가 있습니까?

답) 세 사람만을 대표적으로 들겠습니다. 무학(無學 1327-1405)은 지공, 나옹 등의 스승을 찾아 도를 얻었고 내용선사로부터 의발을 전수 받았습니다. 1392년에는 조선 태조의 왕사가 되었습니다. 서산(西山 1520-1604)은 임진왜란 때 8도 도총섭이 되어 각지에서 승병을 일으켜 구국을 공을 세웠으며, 저서로는 '선가귀감'이 있습니다. 사명(溟溟 1544-1610)은 서산의 제자로서 임진왜란 때 승군을 지휘했으며 일본에 건너가 강화를 맺고 포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문) 선·교 일치란 무엇을 말합니까?

답) 한때 불교인들은 선종(禪宗)과 교종(敎宗)으로 나뉘어 선종은 선만을 주장하고 교종은 교, 즉 불교경전 공부만을 강조하는 나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라 둘 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선과 교는 분리될 것이 아니라 아울러 공부해야 함을 강조하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 우리 불교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문) 조계종의 종지는 무엇입니까?

답) 조계종은 선과 교의 일치, 자력신앙과 타력신앙의 일치로 요약할 수 있는 통불교정신으로, 그 종지로 하여 석가모니 부처님의 참된 정신을 받들어 자아완성을 기하고 널리 중생을 제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우리절 명장면



◇음성공양을 올리는 합창단원들.

<사진 주향진성>

### 청계사 정기법회 안내

- ◇ 초하루 법회: 음력 매월 1일 오전 10시 30분 (회주 중상 큰스님 또는 주지스님 법문)
- ◇ 3일 신중기도: 음력 매월 1~3일 오전 10시 30분
- ◇ 보름법회: 음력 매월 15일 오전 10시 30분 (다라니주력기도)
- ◇ 지장재일 법회: 음력 매월 18일 오전 10시 30분 (광명진언사경)
- ◇ 관음재일 법회: 음력 매월 24일 오전 10시 30분(금강경독송)
- ◇ 어린이·청소년 법회: 매월 2, 4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 불교 대학: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 불교 경전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 시민선원: 매주 월, 수, 오후 2시, 저녁 7시 경내 선불장
- ◇ 마사회 법회: 매월 첫째주 월요일 11시 청계사 설법전
- ◇ 서울구치소 법회: 매주 수요일 서울 구치소
- ◇ 의왕경찰서 법회: 매월 1회 의왕경찰서

- ◇ 새벽 예불: 매일 새벽 4시
- ◇ 사시마지 기도: 매일 오전 10시 30분
- ◇ 저녁예불: 매일 저녁 6시 30분
- ◇ 문의: 종무소 (031)426-2221/426-2348, 은행계좌: 109-058786-01-413, 중소기업은행 (예금주:청계사)

### ※ 차량안내

미가침치(구 오성갈비)앞에서 매일 오전 9시와 10시에 출발합니다. 초하루나 큰 법회(입춘, 초파일, 칠석, 동지)에는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수시로 운행합니다. 내려가는 차편은 오후 1시에 있습니다.

### 알립니다

청계사보는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를 기다립니다.

또한 '청계사보'를 함께 만들 신심 있는 출판부원을 찾습니다. 신문제작과 법보시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문의 : 청계사 출판부
- 부장 : 조여래장 010-8382-2125
- 총무 : 주향진성 010-3745-4525

메일주소 : cksb108@hanmail.net

순수한 마음에서 풍기는
덕의 향기는 이 세상 끝까지 간다.
녹향원은 의왕시 청계로376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시설로 청계사에
운영·지원하는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이달의 후원금
금 3,366,370원
후원금을 보내주시려면
국민은행 : 870501-00-008169
(예금주-녹향원)
녹향원이 법인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 후원금 계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신규로 후원을 계획하시는 후원자분들은 위의
후원금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기존의 후원자님들은 기존
계좌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알려드립니다
CMS 자동이체는 녹향원을 방문
하지거나 매달 초하루법회에서 후원
모집 부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후원가족 자원봉사자 모집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함니다.
주1회 학습지도, 청소, 목욕봉사를
합니다. 뜻을 함께 하실분은
녹향원 : 031426-6698
청계사 : 031426-2348, 2221
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5월 봉사자 명단
봉사활동 없음



후원자님! 소중한 인연공덕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예금계좌 : 국민 870501-00-008169 녹향원

우리들의 따뜻한 사랑이야기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맞춤형 관리로 건강한 삶 누릴 수 있게 지원

녹향원에서는 건강지원사
업 일환으로 거주인 대상으
로 메트로병원 건강검진센
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
니다. 코로나19 예방 안전수
칙을 준수하면서 4명씩 4일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건강검진을 기초로 조금 더
세심하게 개인별 맞춤형 관
리 및 예방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혈압관리, 응급처치 교육, 건강교육,
위생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
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시설 내 체력단련실(금강홀)과 실외 마당
(글 간호사 이승희)

을 활용하여 운동 및 일광욕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
한 활동이 자연적으로 면역
력과 기초체력을 다질 수 있
도록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지루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녹향원
가족이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응원
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녹향원
가족들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Table with 5 columns: 구분, 수입, 지출, 전월이월금, and 금액. Total income: 4,212,050; Total expenditure: 515,560.

녹향원 후원자 명단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 List of donors and amounts: 직접후원 (5,000원~10,000원), 자동납부 (2,000원~10,000원), 저금통 (19,370원).

물품 후원
김재기-과일, 안양여성행사랑-빵, 유병주-박카스, 인덕원파리마켓-빵, 자연과조경-인공토, 청계사-떡 쌀, 한국화훼농협협동조합-꽃바구니

새 후원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등불

적당한 삶

하늘과 땅이 나와 한 뿌리이고 모든
물건이 나의 몸이라 했듯이 세상이 나
와 더불어 한 뿌리이고 한 몸이 아닌가
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시공간적으
로 서로 의지하는 연기의
관계가 아니면 존재
할 수 없습니다.
삼라만상은 사람과 동
물, 꽃과 식물, 달과 별,
바람과 물이 어우러져야
존재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은 소중한 존재입니
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
한 팬데믹 현상으로 전
세계는 물론 우리 승가
사회 또한 서로 의지하
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
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
다.
조금 덥다고 여름을
싫어하고 춥다고 겨울을
싫어합니다.
남들과의 경쟁에서는
언제나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기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며 좌절
합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
는 모든 존재들이 함께
어우러져 공극의 행복
(열반)을 위한 상생의 길
을 갈 수 없습니다.



성행스님
(청계사 주지
녹향원 이사장)

각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방식, 행동 다르지만
욕심 채우기 그만두고 천천히 하심으로 살아가는 삶

며 존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신축년 새
봄이 왔음에도 종단이나 사찰의 여러
행사들도 모두 멈춘 시간 속에 잠을 자
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처에서 각각의 모습으로 살아가
는 방식과 행동은 다르지만 여름날의
무더위도 겨울날의 매서운 추위도 나
와 함께 존재하는 한 몸인 것처럼 결국
우리는 함께 어우러져 공극의 행복(열
반)을 위해 상생의 길을 가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심(下心), 즉 방하착(放
下着)에 답이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심으로 살아가는
태도는 의식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아
니라 내 몸을 속이는데서 출발해야 합
니다.
의식이 지배하는 것보다 습관으로
이제 적당한 삶이 필요한 때입니다.
적당한 삶이란 대중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니라 삼라만상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아 욕심 채우기를 그만두고
행복으로 나아가는 행동을 하는 삶
을 뜻합니다.
이러한 삶을 몸에 베게 하기 위해서
는 급하지 않게 천천히 정진해야 합니
다.
적당한 삶은 내가 사는 길이며 우리
가 사는 길입니다.
청계사 신도님 모두 어려운 지금의
세상에서 안으로는 서로 화합하고 밖
으로는 사회의 고통을 부처님 가르침
으로 치유하고자 노력하는 슬기로운
모습 보여 주기를 당부 드리며 항상 건강하
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니무 관세음보살

생활의 지혜

- 아이서츠의 소매와 기의 누런 때를 확
실하게 지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냉장고 청소할 때 식초를 물에 타서
수건에 묻혀 닦아 보세요.
안경에 김이 서려 곤란할 때가 많죠.
매직펜을 쓰는 화이트 보드는 오래 쓰
면 얼룩이 잘 안 지워지죠.

운(運)은 있지만
정해진 운명(運命)은 없습니다.
운은 노력한 결
과입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비밀입니다.
(정리 심 대덕님)

Table with 7 columns: 쥐띠, 호랑이띠, 용띠, 말띠, 원숭이띠, 개띠, 소띠, 토끼띠, 뱀띠, 양띠, 닭띠, 돼지띠. Each entry includes a zodiac sign icon and a paragraph of advice.